

일본	8월 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
----	--------------------

I	한국산 청고추 ID 도입에 따른 검역 개선 등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한국산 청고추 수출업체 ID도입으로 명령검사 면제 조치(9/9자)

- 일본 후생성은 한국산 신선 청고추에 대해 일본검역시 현재 명령검사 상태인 전수검사 조치에서 한국 농식품부가 요청한 ID 등록 수출업체에 대해서 검사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(9/9자)
 - 신선청고추 명령검사 면제 성분 : 디페노코나졸 및 플루컨코나졸 2개 성분
 - 동성분의 일본내 기준치는 모두 0.01ppm으로 동 기준치 위반으로 인해 한국산 신선 청고추 검역통관시 전수검사 상태였음
 - 면제업체 : 광전무역등 4개 업체
- 신선 청고추는 일본내 한국식당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미 야채이나 매회 전수검사로 인해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통관 보류되는 등 수입업체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, 이번 조치로 인해 신속한 통관 및 검사비용 절감등의 효과가 기대됨

□ 한국산 고춧가루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 검출 주의

- 일본 검역통관시 한국산 고춧가루(홍고추 포함)는 현재 디페노코나졸 성분에 대해 전수검사(명령검사)를 실시하고 있어 검사후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통관이 허용되고 있음
- 한국정부에서는 동성분의 기준치를 한국내 기준치인 0.1ppm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요청하였으며, 일본 정부는 현재 심의 중에 있어 내년 4월경에 기준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기준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명령검사 상태임으로 해당성분에 대한 수출전 사전 검사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
 - 한국내 사전 검사시 다성분 일괄 검사 보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의 농약검사 전문기관에 의한 해당성분만을 별도 지정하여 검사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시 됨
- ※ 한국내 검사기관에서 사전검사시 미검출되었으나 일본 현지 지정검사기관에서 해당 성분만 특정하여 검사시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주의 필요

※ 출처 :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(수입식품안전대책실, 기준심사과)

II

통관 보류 및 해결, 폐기, 반송 사례 (' 15년 8월)

월	품목명	제조사	부적합내용 및 공표일	수입자 명	조치상황
8월	활광어	SANGWOO PRODUCT CO.	쿠도아충 1.7×10^6 개/g 검출 2015.8.13	키요가와상사(유)	폐기 및 반송조치
	붕장어	KYUNG NAN TRADING CO.,LTD	대장균균 양성 2015.8.14	(주)다카기 수산	폐기 및 반송조치 (전량보관)

위반사례 합계 2건 발생

□ 시사점

- 금년도 1~8월까지의 대일수출 한국산 식품류 위반건수를 보면 총21건 발생으로 그 중에 수산물(가공포함) 이 15건 71%를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의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8월 총2건의 위반 사례 모두 수산물로 나타나 여름철 수산물 위생관리
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